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장어구이 드시고 건강한 여름 나세요”

강진 양만협회 금릉회, 사회복지시설 전달 및 위문 격려

강진지역 양만협회인 금릉회(대표 신영래)가 지난 19일 관내 강진군장애인종합복지관을 비롯한 사회복지시설 8개소에 장어구이 50Kg을 전달해 행복한 강진 만들기에 앞장섰다.
이날의 방문은 보양식품인 장어구이를 전달하여 시설 이용자들이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장어구이 50Kg은 시가 약 이백만 원으로 관내 노인복지시설 6개소와 아동시설인 강진자비원, 장애인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총 8개소에 전달되었다. 신영래 대표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어

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해 장어를 전달하면 어떻겠냐고 제안하였는데 회원들이 100% 동의해 주어 이번 장어구이 나눔을 진행하게 되었다”며 “4년 전에도 장어 나눔을 진행한 적이 있다.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 활동을 갖고 더불어 살아가며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승옥 강진군수는 “더위에 지친 주변 이웃들을 위해 장어구이를 준비해주신 금릉회원들께 감사드린다”며 “기탁 받은 장어구이는 복지시설에 전달해 회장 및 회원 분들의 따뜻한 마음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강진=김영일 기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산정특례, 병원에서 등록 가능

‘산정특례 등록 간편화’ 의료급여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중증질환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 등록이 간편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지원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전산화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산정특례 제도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경우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를 경감해 주는 제도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된 환자는 약 12만8000명이다.
개정령안에는 중증질환 및 희귀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산정특례와 틀니·임플란트 등록 신청을 전산망을 통해 관리하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새롭게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하

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전산화 작업이 완료되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산정특례를 의료기관에서 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의료기관이 발급한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시·군·구청에 제출해 산정특례 대상으로 등록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틀니·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사전 등록 역시 등록 신청서를 수급자가 직접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의료기관에서 온라인상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임은정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정은 “2020년 중 산정특례를 시작으로 틀니, 임플란트까지 순차적으로 등록절차를 전산화해 수급권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호 기자

광주 남구, 종합사회복지관·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오늘부터 27일까지

광주 남구는 8월말까지 구내 3개 종합사회복지관과 1개 장애인 복지시설을 지도·점검한다고 19일 밝혔다.
남구는 21일부터 27일까지 동신대 종합사회복지관과 인애 종합사회복지관, 양지 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시설설치 기준, 각종 대장 관리, 시설운영위원회 개최여부, 시설종사자·회계 관리, 후원금 관리 등이다.
구는 점검 과정에서 나타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이뤄지도록

하고 인권침해 등 중대한 위법·부당 사례가 발견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보조금 등 행정지원을 중단할 방침이다.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 복지시설 열린케어 장애인 자립생활센터에 대한 점검은 30일 이뤄진다.
구는 직원 공개채용 여부, 인건비·보조금 관리, 각종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남구 관계자는 “점검을 통해 관내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이 투명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미평 봉화산 삼림욕장 ‘무장애나눔길’ 조성

여수시가 미평 봉화산 삼림욕장에 ‘무장애나눔길’ 1.6km를 조성한다.
무장애나눔길이란 노약자와 장애인, 임산부와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숲을 산책할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시는 2017년과 2019년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주관한 ‘2019년 녹색자금 공모 사업’에 선정돼 복원자금 녹색자금 6억 78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올해 사업은 이미 조성된 숲길 0.8km에 0.8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오는 9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사업비는 시비 포함 10억 5900만 원이다.



숲길에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데크로드를 설치하고, 안전난간과 쉼터, 대피소를 마련한다. 산책로 주변에는 시(詩) 액자를 세워 숲에 문학의 향기를 덧입힐 계획이다.
여수=송기홍 기자

야호센터
월곡동 청소년문화의집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